

제 2부 청소년기는 발명된 것이다 Adolescence Invented

18세기 중반과 19세기 중반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생활 여건의 변화, 개념의 변화, 법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 결과 수천 년 동안 성인으로 취급되던 10대들이 어린이들로 취급되기 시작했다. 서구 문화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성장과정의 새로운 ‘단계’를 만들어냈다.

지금도 대부분의 언어권에서는 청소년기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를 표현할 적절한 단어들 없다. 영어에서 성인 여성은 여자(woman)다. 어린 여성은 소녀(girl)다. 그렇다면 청소년기 여성은 무엇인가? ‘젊은 여자(gal)’인가? 사전에서는 이 단어를 속어로 ‘소녀’라고 한다. 영어로 성인 남성은 남자(man)다. 어린 남성은 소년(boy)이다. 그렇다면 청소년기 남성은 무엇인가? ‘젊은 남자(guy)’인가? 이 단어를 사전에서는 속어로 ‘소년’이라고 한다. 당신이 10대 그룹을 대상으로 ‘guys and gals’라고 부른다면 당신은 그들을 소년과 소녀라고 부르는 것이다.

3, 4, 5, 6장은 어떻게 청소년기가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현재 우리가 10대를 성인이 아닌 어린이로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 도덕적 성숙도 Moral Maturity

어린이들이 청소년기에 들어설 때쯤에 신체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또한 우리가 지난 4장에서 보았듯이 지적인 변화도 이와 같은 시기에 일어난다. 개개인이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기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그들은 추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도덕적 판단도 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들은 성인들과 같은 기준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들이 그렇게 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사춘기 나이가 될 즈음에는 우리는 그들이 좀 더 책임감 있는 도덕적 판단을 하리라고 기대하게 된다. 그들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이러한 변화는 분명한 영향을 끼친다.

성경 시대에는 In Bible Times

우리가 1장에서 보았듯이 성경 시대의 10대들은 성인이었다. 12-13세의 나이에 어린이들은 성인이 되었고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었다. 10대들은 사회에서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성인으로 인정 받았다. 그들은 전적으로 종교 의식에 참여하였고, 또한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었다. 성인이 된 아들이 처음으로 토라(율법 책)를 낭독하는 것을 마쳤을 때, 그의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축도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이 10대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비의 책임에서 해방된 사람은 복이 있다”를 현대어로 번역한 것이다. 유대 백과 사전, 1972, p. 244)

콜버그 Kohlberg

장 피아제의 연구를 기반으로 (인지적 성숙에 대한 연구, 지난 장에서 언급 됨) 로렌스 콜버그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에게 있는 도덕적 갈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콜버그는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그 해결책을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질문도 제기했다. 콜버그는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들의 말보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이유에 대해 더 관심이 있었다. 콜버그는 우리가 성숙해질수록 도덕적 추론이 사고력 같이 구체적인 것부터 추상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통해 개발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 **전인습적 도덕성 Preconventional morality**
아동기 초기에는 어린이들이 보상만 받으려고 하고 처벌은 피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도덕성을 갖고 있다.
- **인습적 도덕성 Conventional morality**
아동기 후기에는 도덕적 추론이 일반적으로 법이나 규칙들을 준수하는 것으로 바뀌지만 그것은 단순히 법과 규칙이기 때문이다.
- **후인습적 도덕성 Postconventional morality**
형식적 조작 사고를 발달시키는 청소년기에는 10대들이 인권과 기본적인 윤리적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도덕적 추론을 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갖는 변화는 마지막 단계의 것으로 사춘기에 가까운 나이, 즉 10대들이 청소년이 될 때 일어나는 변화이다. 그들은 이 단계에서 처음으로 윤리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도덕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그 전에 어린이들은 그저 당면한 상황에 맞는 기존의 규칙이나 법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일반적인 원리를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형식적 조작 사고의 인지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후인습적 도덕성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이 수준에 도달하는 사람들은 주로 서양 문화권에서 교육을 받은 중산층 남성들로서 개인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다. 배려하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여성들과 공동체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인간미 없는 도덕적 원리들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 같은 원리들을 적용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단지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런 추상적 원리를 적용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성인 수준의 도덕적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거듭 알 수 있다. 그들은 성인이다. 우리가 그들의 도덕적 선택에 대해 책임을 묻든지 안 묻든지 간에 그들은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옳고 또는 그름? Right or Wrong?

청소년들이 형식적 조작기 단계에서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러한 유형의 도덕적 선택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모던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각자 사람들이 진실인지 혹은 거짓인지를 결정하듯이 각자가 무엇이 옳은지 혹은 그른지를 결정한다. 포스트모던 청소년은 절대적인 진리(만민에게 옳고 그른 것)를 찾기보다는 오히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각자 자신의 도덕적 체계를 개발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잠언의 저자는 수천 년 전에 이런 것들을 다루었다. 그는 기록하기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르다고 여긴다 (잠 12:15) 또한 사람들도 자신의 행위가 바르다고 여긴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심판하시는 자이다 (잠 16:2). 사람들의 방식이 그들에게 옳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죽음이다. 성경 그 어느 곳에도 개개인이 도덕적인 체계를 개발해야 한다는 말은 없다. 사실 바울 (제 3 문화 자녀)은 말하기를 자신을 자신과 비교하고 스스로 평가하는 자들은 현명하지 않다고 했다(고후 10:12).

한 문화 전체가 옳고 그름을 결정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기독교와 동떨어진 것일 수도 있다. 던 리처드슨(Don Richardson) 선교사가 저술한 「화해의 아이」란 책에서 한 부족에 대해 설명하기를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존경 받을만한 행위는 다른 부족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친구인 척하는 것이고, ‘그 친구’를 저녁식사에 초대하고, 식사 도중에 찢러 죽이는 것이라고 했다. 그가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친구로 행세 할수록, 그의 부족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존경을 받게 된다! 그들의 문화에서는 유다가 크게 존경 받았을 것이다. 그 이유는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의 친구로 행세를 했고 그들이 아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오래 했기 때문이다. 서양 문화에서는 모든 이들이 알다시피 독일 나치스가 유대인을 죽이는 것이 도덕적인 행위라고 결정했고, 그래서 그들은 육백만 명을 죽였다.

최근 현대 청소년들의 도덕성을 가장 포괄적으로 다룬 저서는 조쉬 맥도웰(Josh McDowell)의 「옳고 그름 (예제: 어떻게 바로 사는가?)」이다 (1994). 표지가 말해주듯이 이 연구는 교회에 다니는 청소년의 과반수가 더 이상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맥도웰은 교회 중고등부에 참석하는 학생들이 믿고 있는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바나”라는 조사기관(Barna Research Group)에 도움을 의뢰했고 13개 기독교 복음주의 교파에 속한 3,795명의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순복음 교회, 하나님의 교회 (2그룹), 나사렛 교회, 포스퀘어 교회 (Foursquare Gospel), 자유 감리교, 퀘이커 교회(Friends), 2개의 메노나이트 교회, 오순절 성결교 (Pentecostal Holiness), 구세군, 남 침례교, 웨슬리언 교회). 다음은 그들의 믿음과 경건과 관련한 일부 답변들이다.

- 86% 동의함: 당신의 삶에 여전히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께 인격적인 헌신을 한 적이 있습니까?
- 85% 동의함: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날 세계를 주관하시는 완벽한 창조자이시다.
- 82% 매주 한다: 당신과 당신 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교회 예배 참석을 합니까?
- 80% 동의함: 지옥이라고 알려진 영원한 고통의 장소가 정말 있다.
- 75% 동의함: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다.
- 70% 동의함: 성경은 모든 가르침에 있어 전적으로 정확하다.

이 연구 보고서는 335페이지로 작성됐다. 그래서 결과의 일부 내용이 예시로 여기에 사용 되었다. 이 자료를 참고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여기 주어진 결과는 일반 청소년들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복음주의 기독교 교회에 소속된 중고등부 청소년들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자신의 도덕적 행동에 대한 질문에 응한 대답이다.

- 71% 동의함: 어떤 한 사람에게 주어진 상황이 옳다고 하더라도, 같은 상황을 접한 다른 사람에게 는 꼭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 66% 동의함: 지난 3개월 안에 나는 부모, 교사, 다른 노인에게 거짓말을 한적이 있다.
- 59% 동의함: 지난 3개월 안에 나는 내 친구, 내 또래에게 거짓말을 한적이 있다.
- 54% 동의함: 자유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48% 동의함: 도덕과 윤리 문제에 있어서 진리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 다른 의미로 와 닿을 수 있으며, 그 누구에게도 절대적으로 확실한 진리는 있을 수 없다.
- 38% 동의함: 거짓말은 때때로 필요하다.
- 36% 동의함: 나는 시험 또는 다른 평가 시간에 부정 행위를 한적이 있다.

이것은 무작위 표본으로 조사된 현대 청소년들의 진술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조사 결과는 복음주의 기독교 교회에 다니는 청소년들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 86%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한다고 작성하였으며, 그들은 아직도 그 헌신이 아직도 그들에게 중요하다고 여긴다.

제3문화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What can adolescent TCKs do?

당신은 매일같이 수많은 도덕적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당면하고 있다. 당신은 성인이고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배우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결정을 내려버리는 것이다. 그런 다음 그 결정의 결과를 감수하는 것이다. 당신이 정기적으로 내려야 하는 결정의 일부를 살펴보자.

- 종종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도 도덕적 선택이다: 시청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말아야 하는가.
- 라디오에서 어느 한 노래가 흘러 나올 때도 도덕적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청취를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 운전을 할 때도: 속력을 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 무모하게 운전하는 사람의 차를 뺏을 때: 계속 타고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내려야 하는가.
- 당신이 노란색 신호등에 도달했을 때: 속력을 더 내야 하는가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가.
- 미심쩍은 파티에 초대 받았을 때: 수락해야 하는가 아니면 거부해야 하는가.
- 파티장에 술이 나오기 시작할 때: 마셔야 하는가 아니면 거부해야 하는가. 계속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가.
- 당신이 부당한 상황을 목격했을 때: 관여할 것인가 아니면, 내 일에만 신경 쓸 것인가.
- 현금시간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가 아니면 드리지 않는가.
- 직장에서: 휴식 시간이 끝날 때 제 자리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대화를 나눌 것인가.
- 일을 할 때: 최선을 다 할 것인가 아니면 ‘최저 임금, 최저 노동’이라고 말할 것인가.
-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옆 사람의 답안지를 볼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낮은 점수를 받을 것인가.
- 누군가 부정 행위를 할 때: 정면으로 부딪치는가 아니면 외면해 버리는가.
- 계산대에서 더 많은 거스름 돈을 받았을 때: 그냥 받을 것인가 아니면 돌려줄 것인가.
- 데이트 할 때: 상대방을 존중할 것인가 아니면 얻을 수 있는 걸 다 얻어낼 것인가.

다시 한 번 위에 거론된 상황들을 살펴보자. 당신이 이런 상황에 당면했을 때, 어떻게 했을 것인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당신이 했던 도덕적 결정을 생각해 보라. 몇 개를 성공하고 몇 개를 실패했는가? 당신이 택한 잘못된 도덕적 결정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이것은 언제나 적절한 방법이다.
- 다시는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다짐하라. 그리고 그 다짐을 지켜나가라. 어제 밤에 본 도발적인 TV 프로그램을 안 본 것처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오늘밤에는 채널을 다른 데로 돌리든지 전원을 끌 수 있다.
- 만일 습관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똑같이 한다면 당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한 자에게 부탁을 하고 매주 그 사람을 만나 보고 하라. 그리고 그 중간에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에게 연락하라.
- 적절하고 가능한 경우라면 관련된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라. 만약 당신이 지난 주말에 데이트를 할 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라. 그리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 가능하다면 배상을 하라. 만약 당신이 십일조를 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 주에 하면 된다. 또는 소정의 액수를 정해 그 다음 해 동안 내면 된다. 만약 당신이 휴식시간을 길게 가졌다면 초과근무를 하거나 다음 휴식 시간을 짧게 갖도록 해라.

도덕적으로 선한 선택을 택하는 것은 연습이 필요하다. 당신이 좋은 선택을 하면 할수록 미래에도 당신은 좋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 포기하지 말라. 하지만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고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구하라.

† 이 브로셔는 저자 로날드 코테스키 박사의 원문(Ronald Koteskey: www.missionarycare.com)을 저자의 승인 하에 올네이션스선교센터(www.anmcusa.org)에서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 판권은 올네이션스선교센터에 있습니다.